

광주천 극락교서 인공방사성 물질 검출

암 유발 위험 '요오드-131'...기준치는 밑돌아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가능성...정밀조사해야

영산강과 광주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인공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밑돌지만 자연상태에서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 인공 핵종이 검출된다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요오드-131의 반감기가 8일에 불과해 검출 농도보다 실제 오염 농도가 더 높을 수 있고, 반감기가 짧다는 점에서 방사성 물질이 상시 방출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감시센터)는 광주천 극락교에서 채취한 물에서

인공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이 미량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검출된 농도는 109mBq/ℓ로 국내 식품 기준치(100Bq/ℓ)와 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권고 수치(10Bq/ℓ)에는 크게 밑돈다. 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24일 극락교에서 하천수 30ℓ를 채취해 분석해왔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광주천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방사성 의료 폐기물 부실 관리 ▲감상선암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부실 운영 ▲감상선암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체외 배설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상선암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요오드-131 주사제를 투여받은 뒤 배설물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됐거나 이 과정에서 주사제 등 의료 폐기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사성 의료폐기물은 일반 의료 폐기물과 달리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임시 보관됐다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최종 운반된다. 반면 원자력발전소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 원자력 전문가(방사능화학 박사)는 “반감기가 짧은 요오드-131이 특정 하천에 국한돼 발견됐다는 것은 감상선암 등 암 치료기관이 의료 폐기물 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들 관리를 잘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방사성 의료폐기물 내지는 방사선 치료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도 “방사능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논리는 의학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관계당국이 하천의 다양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도 하고, 배출 경로 파악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시센터는 광주지역 토양(광주공원·만지정·북구 충효동), 인천지역 해저도, 김포지역 토양도 채취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모든 지점에서 세슘-137이 기준치 이하로 미량(0.638~14.2Bq/ℓ) 검출됐다. 감시센터 측은 과거 핵실험이나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건 발단은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 ‘땅콩 회항’ 조현아 달라진 것 없네

결심공판서 입장 되풀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일 법정에서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검사가 ‘사건의 원인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한동안 머뭇거리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당시 여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해 “웰컴 드링크는 매뉴얼에 ‘오더 베이스(Order Basis)’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는 승객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갖다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승무원은 (물어보지 않은 채) 물을 갖다 주면서 콩과 빈 버터 볼을 갖고 왔고, 이는 분명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사무장이 증인신문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년 12월 초 ‘봉지재 보여주며 먹을지 묻고, 먹겠다고 하면 작은 그릇에 담아 제공’으로 개정됐고, 이는 조 전 부사장의 결재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이어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그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연합뉴스

일본 사죄 끝내 못받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생존 53명으로 줄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황선순 할머니가 숨을 거둔 지 닷새 만에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인 A씨가 지난달 31일 입원했던 병원에서 지병으로 운명했다고 2일 밝혔다.

정대협은 “생전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 성함을 포함한 그 어떤 정보도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장례는 고인과 가족들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엄수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53명으로 줄었다. 지난 달 26일 8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황선순 할머니에 이어 올해만 벌써 2명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사과 한마디 제대로 받

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남은 피해자들 역시 이제는 반세기가 훌쩍 지나 나이가 들었고 일부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황 할머니의 추모 행사를 열린 제1천163차 수요집회에서 “각계가 연대해 떠난 할머니뿐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의 땀까지 힘껏 싸워야 한다”며 “남은 할머니들이 일 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었다.

정대협도 이날 A씨의 별세 소식을 알리며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영산강 분류와 광주천이 만나는 지점인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극락교 아래에서 채취한 물에서 인공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이 미량 검출됐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기준치를 밑도는 양이라도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뢰’ 곡성 부산물자원화센터 공장장 법정구속

광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무허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공장장 A(6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센터 공장장으로 퇴비 원료 수집 관리 등 공장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무허가 축산분뇨 운반업자들에게 ‘경쟁업체 없이 편안하게 축분 운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허가 없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해온 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잇단 취업 실패 비판 20대 목숨 끊어

잇단 취업실패를 비판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동광주IC 인근 공터에서 A(29)씨가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렸으며, 렌터카 직원은 반납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차량회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

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년 전 공무원 시험을 치렀으나 연이어 낙방하자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취업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수년간 취업을 위해 공부했지만 쉽지 않아 힘들어 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연이어 취업에 실패하자 처지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선물한 반지 돌려받으려고... 헤어진 여친 원룸 들어가 슬쩍



○...헤어진 여친의 원룸에 들어가 선물했던 금반지를 슬쩍 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 신고로 경찰에 들렸다.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유모(35)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공모(여·31)씨가 사는 S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금반지(18캐럿) 등 귀금속 2점

(시가 65만원 상당)을 화장대에서 꺼내 갔다는 것.

○...유씨와 공씨는 3개월 전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자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자 찾길에 가져왔는데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올 줄 알았더니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급매” 합니다 투자 가치 좋습니다

직매. 010-3605-5000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 지하 - 51평, 상가
- 1층 - 41평, 상가
- 2층 - 46평, 사무실
-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2월 6일까지
5억8천 만원